



연변단풍의 표

연변단풍수필회
회원 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단풍수필회 회원 작품집



단풍잎

江苏工业学院图书馆
藏书章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李恩姬

责任校对: 金红华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枫叶: 朝鲜文 / 延边枫叶随笔会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10

ISBN 978-7-5449-0722-4

I. 枫… II. 延…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87528号

枫 叶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1.625 字数: 3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722-4 (民文)

版次: 2009年10月第1版

2009年10月第1次印刷

印数: 1-600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 리 말

작년 10월 10일에 연변단풍수필회에서는 설립 열돛 잔치를 치렀다. 사람도 10년이면 모습을 달리한다는데 늙은 문인들만 모여 세운 자그마한 단체가 10년을 살아왔다는것이 자랑스럽지 않을수 없다.

10년 세월을 돌이켜 생각하니 과연 감회도 깊고 끔찍한 일도 많았다.

제일 가슴 쓰린것은 뜻을 같이했던 선배문인들과 문우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일이다. 단풍수필회는 원래 인생의 단풍계절에 림한 로작가, 로교수, 로문필가들로 무어진 대중단체여서 그런지 단풍잎이 한잎두잎 떨어져서 귀근(归根)하듯이 이 10년 사이에 아쉽게도 5~6명이나 되는 문우들이 우리곁을 떠났다. 그들이 쌓아올린 업적은 연변단풍수필회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그리고 제일 긍지로운것은 이 10년 사이에 새로운 로작가와 문필가들이 용약 단풍수필회에 들어와 보다 더 활약적으로 활동하고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우리 단풍수필회는 조선족수필화원에서 어엿한 한떨기 꽃으로 피여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10년간 우리 단풍수필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도성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한 덕으로 용케 살

2 * 단풍잎

아왔다. 더구나 아무런 경제래원이 없으면서도 그사이에 국내외를 동분서주하며 자금을 모아 회원작품집 《단풍잎》을 일곱책이나 펴냈으니 과연 대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창거의 뜻을 이어받아 금년에도 이렇게 《단풍잎》을 묶어내게 되었다.

이번 작품집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연변내외에서 활약하는 단풍수필회 회원들이 창작한 작품을 묶었다. 그리고 얼마전에 작고하신 현룡순, 황장석 등 고인들의 유작도 몇편 실었다. 차례는 여전히 년장자순으로 하였다.

우리 《단풍잎》은 수필을 중심으로 한 회원작품집이다.

이 《단풍잎》에는 로작가들의 풍부한 체험이 짙게 묻은 소재들을 다룬 글들이 실려서 정보량이 많을뿐더러 오랜 창작경험에 의한 예술적기량이 돋보이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오태호선생님과 같은 로용들의 수필은 주견이 바르고 정감이 진솔하며 민속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생동하다. 작품마다 개성적인 필치로 씌여졌기에 독자들이 심미적향수속에서 뭔가를 깨우칠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라 믿는다.

이번 《단풍잎》도 어렵게 세상별을 보게 되었다. 궁핍하면서도 뜻을 이루려는 로문필가들의 로고와 가궁한 사정을 어여뻐 헤아리고 보살펴서 후원의 손길을 보내준 고마운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책 출판이 성사될수 없었을것이다. 하기에 이 《단풍잎》을 펴낼수 있도록 경제적후원을 준 지성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작품집이 나오도록 힘써준 출판사의 유관 책임자와 사업일군들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연변단풍수필회 회장 김운일

2009년 6월 23일

차 례



머리말	1
-----------	---

리홍규 편

풍성한 연회	2
따라배우고싶은 김정석시인	6
빠스안에서 로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를 두고	9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 관철에 대한 리해	12
한국경찰의 폭행에 대한 분노	16

현룡순 편

잊을수 없는 그때 그 시절	20
----------------------	----

오테호 편

력사의 아이로니컬한 반증	37
제사는 미신이 아니다	42
북국땅의 절기	49
카네이션과 발렌타인데이	55
술취담	60

2 단풍잎

리광순 편

망측한 론단	67
--------------	----

김길련 편

내림길멜로디	73
창결선생님의 의리	88

김운일 편

우리 외삼촌	96
그 정력이 아쉽다	107

김응준 편

나와 시	116
죄신으로부터 구두에로	121
교회에 다시 배우는 사교무	125

김창석 편

비행기를 타보고서	130
부러운 나무숲	134
자식 키우는 모습	138
희한스러운 견문들	144

김영금 편

하늘을 덮고 사는 녀인	151
영원한 미녀—양귀비	155
리사(李斯)의 죽음으로부터	161

최홍자 편

다리	165
----------	-----

방룡주 편

엄마별	170
-----------	-----

장진숙 편

로처녀 시집가다	175
유년의 추억이 숨쉬는 연길공원	180
세월은 아득히 흘러갔어도	186
황장석선생님을 추모하여	193

황장석 편

안해의 사랑	197
단잠 자는 안해	203
나의 비명	204
한숨	206

전성호 편

청도시 벽산조선족소학교를 찾아서	208
-------------------------	-----

최균선 편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잡을수 있는가?	215
막연한 래일을 대비해두자	219
회한의 메아리	223
나발불기와 으시대기	228

4 단풍잎

한세준 편

깊은 사색과 감동을 준 한권의 수기	234
뿌리 박은 터에 소망을 심는다	238
끝나지 않은 쥐와의 전쟁	245

김복순 편

후회 없는 선택	249
보는 재미, 먹는 재미	255

최기자 편

로소동학(老少同学)	260
소망	264
찬양에 헤프지 말고 칭찬에 린색하지 말았으면	270

김영자 편

너도 울고 나도 울고	274
-------------------	-----

리태근 편

작은 꽃쌈지	278
툼밥인생	283
백두의 호랑이로 키우렵니다	288

허룡석 편

광활한 천지에서 일어난 “대지진”	29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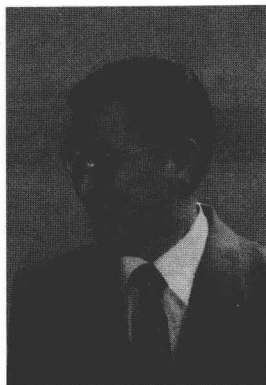
홍천룡 편

무용—랑만의 깃을 펴는 천사의 날개	317
문학동네 “강아지”들	325

세월아, 좀 천천히 가려무나!	331
맛이 없게 해서 맛이 있게 먹자	339
영양실조에 걸린 “팡즈”와 “말라뎡이”	348
 연변단풍수필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356
진뵈어라, 단풍이여!	358

리홍규 편

1927년 흑룡강성 출생. 선후로 목단강
《인민신보》, 할빈 《민주일보》, 연변 《동북조선
인민보》에서 근무. 중공연변주위 선전부 간사,
부과장, 연변가무단 단장, 주문화처(국) 처장,
연변문련 주석,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등 직무를
역임. 중국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회원.
장편소설 《대홍수》, 소설집 《개선》, 번역작품
《연안보위》 등 다수.



☆☆☆☆☆☆

풍성한 연회

따라배우고싶은 김경석시인

빠스안에서 로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를 두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 관철에 대한 리해

한국경찰의 폭행에 대한 분노

풍성한 연회

1944년, 졸업을 앞둔 목단강공업학교 광산야금학부 학생들은 적도탄광에 가서 이른바 실습을 하게 되었다. 나도 그 40여명 실습생중의 한 사람이었다.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개운치가 않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누가 웨쳤다.

“오늘 경찰이 연회를 베풀어 우리를 먹인단다. 자, 우리 가서 먹어주자!”

그 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우리 실습생들은 왁작 떠들어대며 탄광에서 멀지 않은 시내로 달려갔다. 경찰이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 먹인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상천외의 일이기때문에 나는 놀라움과 의문을 가득 안고 따라갔다.

우리들이 찾아간 식당은 적도시내의 중심에 있는 중국인 “관즈”(식당)였다. 한 경찰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돌아치며 빨리 료리를 올리라고 호령하였다. 연회가 시작되기전에 한 사복경찰이 들어섰다. 후리후리한 키에

풍채도 아주 좋았다. 그 사복경찰이 들어서자 우리를 접대하던 경찰이 굽신거리며 그 경찰을 상좌에 모신후 우리에게 무슨 주임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주임이란자는 네개의 상에 둘러앉은 학생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약간 끄덕여 환영을 표시하였다. 참말 이상했다. 그 무서운 경찰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보고 미소까지 지을가?

더구나 놀라운것은 음식상위에 술병까지 놓여있는것이였다. 우리를 접대하던 경찰은 학생들더러 술잔들에 술을 붓게 한 다음 친히 사복경찰앞에 가서 공손히 술을 따르고는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주임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여러분, 탄광에 와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음식상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인것만큼 마음놓고 마시고 료리를 드십시오. 자, 여러분, 학생들의 건강과 출세를 위하여 건배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먼저 잔을 들어 쪽 들이미쳤다. 그 경찰은 일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을 하였다. 참 이상하였다.

우리는 굵은 사람처럼 마시고 먹었다. 나는 난생처음 이렇게 풍성한 료리를 먹어보았으며 도수 높은 좋은 술을 마셔보았다.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모두 정신없이 서로 질세라 먹고 마셨다. 술이 거나해졌는지라 한 학생은 당돌하게 “××주임이 노래 한곡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 떠나갈듯이 박수를 쳐대며 응원했다. 그 주임경찰은 별로 사양하지 않고 미리 준비나 한것처럼 “졸업가”(서양민가 “영원한 우정”의 곡)를 조선말로 불렀다. 다 아는 조선노래라 모두 따라 불렀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학생들은 속심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왜놈들이 강제로 끌어난 “쿠리”(苦力)들의 비참한 노동정경을 말하면서 비분에 차서 왜놈들을 욕했다.

그때 “쿠리”들은 갱으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언제나 괴뢰 경위들의 압송을 받았다. 그들은 하루에 강냉이떡 두개를 먹었다. 그러면서 하루에 12시간의 고역을 치렀다. 병이 나서 앓아도 갱 속에 몰아넣어 일하게 하였다. 도망치다 붙잡혀온 “쿠리”들을 말뚝에 바줄로 동여매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숙소뒤 언덕에는 “쿠리”들의 시체를 파묻은 웅덩이가 가득했다. 일본감독들은 갱속에서 조금만 어정거리면 “피켈”(한쪽끝이 뾰족한 자루가 긴 망치)로 “쿠리”들을 내리쳤다. 인간대접을 못 받는 그들은 자기들을 동정하는 우리 조선인학생들을 좋아하였다. 틈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들이 붙잡혀온 경과며 그리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스폭발로 죽은 “쿠리”들은 기수부지였다.

그날 학생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분노에 차서 열변을 토했다. 어떤 학우들은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웨쳤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경찰은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 그뒤 나는 오래동안 그날 일을 두고 의문이 많았다. 경찰들이 어찌 연회를 차리고 우리 학생들을 초대했을까? 어찌 조선노래를 부르고 조선말을 했을까? 우리 조선족학생들의 사상동태를 알고 고 획책한 음모였을까? 내내 의문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사실 그때 우리 학생들속에는 일본당국을 반대하는 이런저런 언론들이 많았던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신자인 박필규란 학생만은 “나는 혁명을 반대한다(나는 그의 입에서 처음 혁명이란 말을 들었다). 혁명은 폭력을 의미한다. 우리 기독교신자들은 폭력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독서를 누구보다 많이 한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여러 학우들이 그의 언론을 반박하였다. 나이 지긋한 학생들은 나이 어린 학우들에게 맞는 말이지만 아무 장소에서나 말해서는 안된다고 귀뜸하였다. 아무튼 당시 우리 조선인학생들은 대부분 반일사상을 가지고있었다. 연회가 끝난후 나는 은근히 경

찰들이 우리를 해칠가봐 걱정하였다.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졸업해 제 각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서로 편지거래를 했는데 잡혀갔다는 소식이 없었다. 아마 조선인경찰에게도 민족감정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몇십년이 지난 1980년도에 우연히 무슨 세미나르에 참가하고 나를 찾아온 옛 동창인 최범수와 이말저말하다가 문득 그때의 연회사연이 생각나 품었던 의문을 말했더니 그는 하하! 하고 웃고나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다.

북만에서 세력이 당당했던 국민당토비두목—사문동이 경찰들에게 돈을 주어 그날 연회를 차리게 했다는것이다. 사문동이 왜 그랬을까? 내가 의문을 제기하니 그가 사연을 알려주었다. 당시 실습을 간 우리 학생들은 사실 “쿠리”들이 자는 숙소에서 자고 그들처럼 석탄을 캐는 “실습”을 했던것이다. 당시 적도탄광에서 “바토”로 있는 사문동은 우리들이 채굴한 석탄을 몽땅 팔아서 자기가 쟁겼다는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생들이 들고일어나자 입을 막기 위해 경찰들에게 돈을 주어 학생들을 달래게 했다는것이다. 당시 우리는 나이가 어려 잘 몰랐지만 나이가 지긋하고 힘꼴을 켜는 키적다리 한 학생이 중국사람의 먹살을 틀어쥐고 골반이를 하여 코피를 흘리게 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 그런 일이였구나! 그때 코피를 흘리던 그놈이 사문동이였구나! 그 용감한 친구 덕분에 우리가 연회에 초대받는 행운을 가졌됐구나! 돈을 받은 경찰들은 그래서 조선노래도 부르고 조선말도 하면서 우리를 얼렸구나!

오래동안 가슴속에 파묻었던 “비밀”을 알고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때 너무 천진했던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2009년 5월

따라배우고싶은 김경석시인

동희철선생이 작곡한 “고향산기슭에서”는 명곡이다.

연변특색이 짙고 작곡가의 개성이 뚜렷이 안겨오는, 들을수록 재미있고 친절한 노래이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바로 김경석시인이다. 이 가사는 그가 고증을 다닐 때 모아산에 원족을 갔다가 산봉에 올라 내려다본 농촌풍경에 감동되어 창작한것이다.

이런 좋은 가사가 없었다면 동선생은 그런 명곡을 창작하기 어려웠을것이다. 김경석시인은 1960년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에 퇴직할 때까지 《연변일보》 문예부를 비롯하여 연변가무단 등 단위에서 사업하면서 틈틈이 많은 가사와 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천부를 가진 시인이다. 1948년 어린 나이에 벌써 처녀작 동요 “알미운 장개석”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고향산기슭에서”는 1955년에 창작하였다. 1956년에는 소형가극 “꽃봉투”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산작가이다. 주요저서로는 시집 《파란 수건》, 《갈림길》, 담시집 《백일홍》, 동요동시집 《빨간 리봉》, 《하얀 종이배》, 시조집 《할미꽃》, 가사집 《원앙새 한쌍》, 작사집 《아, 해란강》, 장편서사시 《그는 죽지 않았다》, 《사랑의 표징》 등 작품집외에도 리론저서로 《가사창작감상》, 《민족신문학론》, 《성공의 비결은 어

다?》, 번역저서 《청춘》 등이 있다.

그는 다재다능한 시인이다. 수많은 가사로 이름났을뿐만 아니라 작곡도 많이 하였다. 최근에 출판한 아동가요집 《종달새》, 대중가요집 《새 아리랑》은 김경석이 작사, 작곡한 저서이다. 그외에도 “아침의 기숙사” 등 50여수의 노래를 작곡하였고 “수필언어의 특성” 등 논문 30여편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성, 자치주 등 해당 부문으로부터 10여차 수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많은 작품을 창작, 발표하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끈질겼으며 말이 없었다.

특히 감동되는것은 그가 퇴직한후 10여년간 줄곧 길림성 조선문간행물 열독심사임무를 맡아 바쁘면서도 찹찹이 지난날의 신문잡지들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자기가 발표했던 작품들을 수집하여 12종의 저서를 자비로 출판해낸 일이다. 많지 않은 로임에서 아껴 먹고 아껴쓰면서 아글타글 돈을 모아 출판경비에 10여만원을 바쳤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찡해났다. 로임에서 그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작가는 자기 작품을 독자들과 만나게 하는것이 최대의 욕망이고 소원이니까 이런 로고를 참아냈을것이다.

김경석시인은 참말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는 책상앞에 앉으면 일어설줄 모른다. 천부도 있지만 그의 성공의 비결은 끈질긴 정신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재간이 있어도 부지런하지 못해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깐.

말이 나온김에 하는 말이지만 김경석시인처럼 지금 작가들이 모두 자비로 책을 출판하느라 가난하게 사는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노동자가 자기의 돈을 공장에 바쳐가면서 진중일 노동하는것과 같다. 자기 돈을 내면서 공장에 가서 노동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작품을 창작하는것도 간고한 정신노동이다. 그